



# 전주매일

비수술적 척추관절 통증치료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박경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 일자리정책 '정부도 인정'

도, 전국 자치단체 일자리 대상 시상식서 '최우수' 수상  
미래산업 등 일자리 핵심으로 선정 행정력 집중 '결실'

주력산업 침체, 코로나19 확산 등 최악의 고용위기 극복을 위한 송하진 호(號)의 2020년 일자리 대책이 중앙정부 일자리정책 평가에서 '최우수상'의 영예를 차지했다.

전북도는 대전 ICC호텔에서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열린 '전국 자치단체 일자리 대상 시상식'에서 일자리정책 분야 '최우수상'을 수상했다고 6일 밝혔다. 이날 시상식은 김부겸 국무총리, 인경덕 고용노동부 장관 등 중앙부처 인사와 수상 지자체장 관계 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리 개선에 집중했고, 고용창출과 고용유지 효과가 높은 미래산업, 삼락농장, 중소기업 청년취업취약계층, 사회적경제(일자리 질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지원했다. 모든 행정력을 집중했다.

특히, 대기업이 떠난 폐허의 위기 극복을 위한 전북 군산형 일자리, 고용유발 효과가 큰 서남권 해상풍력 육성 프로젝트, 청년 농업인 및 청년일자리 육성정책, 소상공인 보호정책 등 지역일자리 여건에 맞는 일자리 대책을 내실 있게 추진했다.

이에, 코로나19와 지역 주력산업 침체 속에서도 좋은 일자리로 평가되는 상용근로 수가 41만2,000명을 기록, 전년 40만명 대비 3.0%로 급증했다.

지난 2019년 59.3%였던 고용률도 20년 59.9%를 기록, 코로나19라는 최악의 상황속에서도 0.6%p 상향, 증가율에서 전국 1위를 달성했다.

전국 평균 증가율이 마이너스 증가(-0.8%p)인 점을 감안하면 전북의 고용률 증가를 전국 1위가 가지는 의미는 더욱 남다르다.

또한, 자치단체의 일자리 시책에 대한 행정평가에서 송하진 지사의 일자리 창출에 대한 의지가 좋은 평가를 받았다.

송하진 도지사는 각종 인터뷰에서 "2020년에는 체질강화와 지속가능한 산업생태계 구축 등 지역 특성에 맞는 일자리정책을 추진해 도민이 체감하도록 노력하겠다"며 일자리 창출에 대한 강한 의지를 표명해 왔다.

실제, 송 지사는 일자리 창출을 위해 일자리경제국을 2급 핵심부서인 일자

리경제본부로 격상하고, 담당자 역량 강화 및 승진 확대 반영 등 대내적 역량을 강화했다.

일자리창출 성과제고 및 책임성 확보를 위해 일자리 창출 실적을 실·국장 및 전 직원 성과평가에 반영하고, 일자리 창출 및 고용유지 현장활동 추진 등 일자리창출 업무를 최우선 순위에 두고 도정을 챙겨왔다.

한편, 질적 평가 요소인 근로문화 개선과 사회적경제 활성화 분야에서도 타 지역과 차별화된 정책으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먼저, 더 좋은 일자리 기금 조성 등 근로자 복지를 확대하고, 비정규직 노동자 지원센터 운영, 사각지대 노동자 실태조사를 통한 지원기관 마련 등 다양한 일자리 질 개선 사업을 추진했다.

그 결과 비정규직 비중 0.9%p 감소, 소상공인 고용보험 가입자 수 21% 상승 등 질적 부분에서도 도드라진 성과를 이뤘다는 평가다.

또 사회적경제 분야에서는 사회적경제 단계별 성장 지원, 판로·마케팅 지원 강화, 전담부서 신설 및 전문관 배치 등 실행력 강화를 통해 사회적기업이 2019년 대비 13.7% 증가(1,539 → 1,748개, 증 209개)하는 등 사회적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이끌어냈다는 평가를 받았다.

송하진 도지사는 "작년 한 해는 2019년 회복세를 보였던 군산 고용위기가 주력산업의 침체와 코로나19 장기화 여파로 재악화돼 어렵고 힘겨운 한 해였으나,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시·군과 일자리 유관기관 등이 한 마음, 한 뜻으로 해결 방안을 찾기 위해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아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력했다"면서 "어려운 시기에 전북도의 일자리 창출 노력이 중앙정부로부터 우수성을 인정받아 그 어느 때보다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또한 "지난해 주요 고용지표에서 상당 부분 개선됐지만, 올해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고용안정 대책, 소상공인 경영안정화, 여전히 팽팽한 청년취업문제, 주 52시간 근무제 확대 대응 등 해결해야 할 현안이 많다"면서 "이번 수상이 도민이 체감하고, 만족할 수 있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의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유호상 기자

## 국립완주문화재연구소 공동협력

2021. 7. 6.(화) 11월



김승수 전주시장(사진 오른쪽)과 유재은 국립완주문화재연구소장은 6일 전주시장실에서 전주지역 문화유산 학술조사연구 및 활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 일제강점기 수탈 '기록화' 한다

전주시-국립완주문화재연구소, 지역 유산 학술조사연구 협약

전주시가 일제강점기 농촌 수탈의 역사를 책으로 발간하고 후백제와 조선시대 문화유산 학술조사에 나서는 등 지역 역사 문화 복원에 공을 들인다. (편견기사 4면)

김승수 전주시장과 유재은 국립완주문화재연구소장은 6일 전주시장실에서 전주지역 문화유산 학술조사연구 및 활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고고·건축문화유산 조사연구 및 행정협력 ▲전주지역 문화유산 활용을 위한 학술 및 행정지원 협력 ▲문화유산 가치 제고를 위한 제반활동 등에 협력하기로 했다.

대표적으로 국립완주문화재연구소는 이날 전주역사박물관과 별도의 업무협약을 맺고 일제강점기 전북 농촌자료 학술연구에 나서기로 했다.

일제강점기 전주를 포함한 전북은 다른 지역에 비해 일제의 경제적 수탈이 심했던 곡창지역이었지만

당시 일본인 농장 자료 데이터베이스로 구축 후 올 연말까지 '도록' 발간

후백제·조선시대 등도 중장기 연구계획 수립

체계적인 연구가 진행되지 않아 미래 세대의 역사교육을 위한 자료와 장소가 빠르게 멸실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국립완주문화재연구소는 전주역사박물관이 소장 중인 일제강점기 일본인 농장 자료 40여 점을 바탕으로 관련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한 뒤 올 연말까지 일제강점기 농촌 수탈 자료인 '도록(圖錄)'을 발간하기로 했다. 지난해 정읍시 화호리 구마포토 농장을 중심으로 연구에 착수한 데 이어 전주까지 사업 대상을 확대한다는 게 국립완주문화재연구소의 계획이다. /김윤상 기자

이와 함께 시는 일제강점기 뿐만 아니라 후백제 왕도 전주부성 역사 복원 사업, 근대문화재 보존관리 및 연구 사업 등에 있어서도 국립완주문화재연구소와 유기적인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해 중장기 연구계획을 수립하고 활용 방안을 모색해 나가기로 했다.

김승수 전주시장은 "이번 연구는 일제강점기 우리 아픈 역사의 현장을 확인하고 역사를 올바르게 배우기 위한 것"이라며 "이와 함께 후백제, 조선시대 등의 모습을 복원하고 이를 역사교육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국립완주문화재연구소를 비롯한 연구기관과 협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립완주문화재연구소는 도내 주요 문화재 현안인 가야문화권 조사·연구, 고조선 철기문화의 도입과 확산 초기 마한 후백제 관련 조사·연구, 전북의 전통문화 연구 등을 목적으로 지난 2019년 10월에 설립됐다. /김윤상 기자

**다이로움 익산시**

역사고도 백제왕도 익산에서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의 숨결을 느껴보세요.

- #용안 생태습지
- #왕궁리 유적
- #고소리악
- #용포캠핑장